

## 현재성 문제와 지금의 지표성\*

강 수 휘

최근의 시간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새로운 무시제 이론가들은 시제 문장들의 진리조건을 무시제 문장들을 통해 부여할 수 있다는 언어철학적 결과를 통해, 시제 사실들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A-이론을 비판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형이상학적 논변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언어철학적인 논변과 달리 B-이론은 유지될 수 없으며, 오히려 A-이론이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론임을 논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존속과 변화에 관한 흥미로운 문제들이 다루어지며, 시간 철학에서의 몇몇 개념에 관한 명료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A-이론과도 B-이론과도 다른 새로운 대안적인 시간 이론이 제시되고, 이 이론이 지니는 특징들과 장점들이 이야기된다.

【주요어】 A-이론, B-이론, 현재성 문제, 존속, 인속, 편속

---

\* 언제나 중요하고 새로운 철학적 문제에 관하여 탐구할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나름의 논변을 진전시키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선우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에 담긴 아이디어와 논변들 역시 선우환 선생님의 지도와 조언과 격려에 많은 빛을 진 것들이다. 또한 이 논문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유용한 비판과 충고를 해 준 익명의 두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철학자 맥타가트(McTaggart)는 시간 상의 위치들 사이에 성립하는 ‘보다 이른 earlier than’, ‘보다 늦은 later than’ 관계를 통하여 구성되는 시간 계열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속성에 의해 구성되는 시간 계열을 구별하고, 이들을 각각 B-계열(B-series)과 A-계열(A-series)이라고 부른다.<sup>1)</sup> 맥타가트의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진 후, 시간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는 A-계열과 B-계열이 모두 시간에 본질적이라고 보는 입장인 A-이론(A-Theory)과 오직 B-계열만이 시간에 본질적이라는 견해인 B-이론(B-Theory)이 대립하고 있다.

A-이론과 B-이론 사이의 논쟁은 A-계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논쟁이고, 따라서 과거임, 현재임, 미래적임이라는 시제적 속성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다. 이는 시제 표현을 지닌 우리의 언어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자연스럽게 관련되는데, 러셀(B. Russell)과 같은 초기의 B-이론가들은 시제 문장들(tensed sentences)을 무시제 문장(tenseless sentences)으로 환원시킴으로써 A-계열과 관련된 사실을 거부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언어철학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시제 표현을 무시제 표현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B-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Now’와 같은 시제 지표어가 들어간 문장은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문장으로 환원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문장들을 통해서 진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언어 철학적 탐구의 결과이다. 이를 통해서 이른바 ‘새로운 무시제 이론(New Tenseless Theory of Time)’이 등장하게 된다.<sup>2)</sup>

1) McTaggart, “Unreality of time,” in Le Poidevin and MacBeath 1993, p.24.

2) 언어철학과 관련된 시간 철학 논의의 전개는 Smith 1987 (Oaklander and Smith 1994 pp.38-40)에 간략하게 잘 소개되어 있다.

새로운 무시제 이론에 의하면, 시제 문장들은 무시제 문장들을 통해서 진리 조건이 부여되며, 따라서 시제 사실과 같은 것은 요구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A-계열이 시간에 관하여 본질적이라고 여기는 몇몇 사례들, 예를 들면, 변화, 시간이 경과한다는 우리의 믿음, 등등을 설명해내기(explain away)만 하면 된다. 실제로 멜러(D. H. Mellor)나 스마트(J. J. Smart)와 같은 새로운 무시제 이론가들은 시제 문장들에 무시제적 진리 조건을 부여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현상을 그럴듯하게 B-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언어 철학적 논변을 통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입장처럼 보였던 B-이론이, 형이상학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성 문제(The Present Problem)를 소개하고, 이와 연관해서 B-이론이 지니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B-이론이 언어철학적 탐구에 의해 보여진 것과 같은 만족스러운 이론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한 뒤, 나아가 A-이론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정합적인 답변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결론적으로 A-이론이 B-이론에 비하여 형이상학적으로 보다 만족스러운 이론임을 보여주는 논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변화와 존속에 관한, 그리고 시간의 지표성과 A-이론에 관한 흥미로운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A-이론과 B-이론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새로운 시간 이론을 모색하고, 이 이론이 지니는 몇몇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 1. 현재성 문제 The Present Problem

본(Craig Bourne)은 다음과 같이 현재성 문제를 제시한다:

(현재성 문제) 우리는 우리가 현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시간에 관한 어떠한 적절한 이론이라도 그러한 지식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sup>3)</sup>

그에 따르면, B-이론가들은 현재성 문제에 관하여 ‘현재’나 ‘지금’을 지표어로 다룸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A-이론가들은 이 문제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줄 수 없다. 보다 자세히 말해서, B-이론가들에게는 현재란 단지 우리가 위치한 시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현재적이라는 지식과 그 지식의 의심하기 힘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A-이론가들은 현재성 문제를 진정한 문제로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적이거나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존재론적으로 우월하게 여기는 A-이론가들의 이러한 답변을 비판하기 위해서 본(Bourne)은 현실성(Actuality)에 대한 루이스(David K. Lewis)의 논변을 이용한다.<sup>4)</sup>

“만일 그러한 시제 이론가와 나, 그리고 모든 다른 현재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현재적이라는 즉각적인 지식을 가진다면, 플라톤 역시 그랬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나에게 내가 현재적이라는 지식을 주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증거에 의해서 속으며, 과거의 다른 시간에 떨어져 존재한다.”<sup>5)</sup>

3) Bourne 2002, p.359.

4)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간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양상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평행하게 이루어진다. 통시간적 동일성 문제와 통세계적 동일성 문제의 경우나, 한시적 동일성 문제와 우연적 동일성 문제 등이 그러한 예이다. 여기에서는 시간에서의 현재성이 양상 경우의 현실성과 비교되고 있는데, Bourne은 현재성에 대한 지표적 설명을 위해서, Lewis가 현실성을 지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Adams에 언급에 대하여 답변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그것을 시간의 경우로 바꿔 주장한다.

5) 위의 글, p.360.

즉, A-이론가들은 현재성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현재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직관적인 믿음이라고 답변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현재가 다른 시간에 비해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것이라는 결론을 추론할 수 없다.<sup>6)</sup>

그러나 비록 이러한 그의 논변이 우리가 단지 직관적인 판단에만 근거하여 현재라는 시간을 우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함축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그의 논증은 너무 성급하다. ‘현재’나 ‘지금’과 같은 표현을 지표어로 파악하는 것이 과연 B-이론을 현재성 문제에 관하여 올바른 답변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B-이론가들은 현재를 지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다음 절에서 B-이론은 현재를 지표적으로 분석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심각한 형이상학적 부담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이 논증을 A-이론에 반대하는 언어 철학적 논변에 대응하여 B-이론에 반대하는 형이상학적 논변이라고 하겠다.

## 2. B-이론에 반대하는 형이상학적 논변들 Metaphysical Arguments against B-theory

현재에 대한 지표적 설명을 위해서는, 시간 상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요구되고, 이러한 대상들은 대개 시간에 걸쳐서 존속한다. 존

---

6) 현실성의 특별함에 대한 루이스의 비판이나, 루이스의 비판을 변용한 현재성의 특별함에 대한 본의 비판이나 모두 현실성이나 현재성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판은 그러한 ‘특별함’에 대한 직관이 현실성이나 현재성을 지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론 내에서도 충분히 수용되기 때문에, 그 직관 자체가 현실 세계와 현재가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위한 논변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속하는 대상들 중에서도 우리가 위치한 시간이 현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현재에 대한 지표적 분석이다.<sup>7)</sup> 존속(persistence)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속이론(Endurance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편속이론(Perdurant Theory)이다. 인속이론에 따르면, 시간에 걸쳐서 존속하는 대상들은 매 순간 전체적으로(wholly) 나타나면서 존재한다. 반면 편속이론에 의하면, 존속하는 대상들은 시간적 부분들을 지닌다. 그러면 우리는 B-이론의 현재에 대한 지표적 설명을 살펴 보기 위해서, B-이론을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를 지표적으로 만들어주는 대상이 인속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를 지표적으로 만들어주는 대상이 편속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론이다. 전자를 B-이론적 인속이론(B-theoretic endurantism)이라고 하고, 후자를 B-이론적 편속이론(B-theoretic perdurantism)이라고 하자.<sup>8)</sup>

7) ‘우리’란 말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때 존속하는 다른 대상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답변하면 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개체화(individuation)되는 것들이 우리이고, 그러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지위의 시간들 가운데 특정한 시간이 현재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개체화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적임이라는 속성과 무관한지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사실 존속하는 대상은 우리뿐이라는 답변이 순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처럼 보인다. 존속과 현재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이와 같은 난점이 생겨난다는 것이 아래 논변에서 보이려고 하는 바이다. 여기에서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현재의 지표적 특성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의 문제제기와 아래의 논변들은 존속에 관한 입장을 가정하지 않은 시간에 관한 논의나, 그 반대 논의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8) 이와 유사한 구분이 Crisp의 논문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시제 양화사와 시간에 관한 철학을 함께 고려한 A-이론적 영원론과 B-이론적 영원론을 구별하면서, 이를 각각 동적 영원론(Dynamic Eternalism)과 정적 영원론(Static Eternalism)으로도 부른다. Crisp 2003, 2.4.1 p.219을 참고하라.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이 글에서 이루어진 시간 이론과 존속 이론의 가능한

(1) B-이론적 인속 이론 B-theoretic Endurantism<sup>9)</sup>

B-이론적 인속이론은 대상들이 B-계열 상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보편자적인 B-이론적 인속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존속하는 대상들은 보편자와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존속한다. 즉, 보편자가 여러 공간에 여러 개별자에게 함께 나타나듯이, 인속하는 대상은 B-계열 상의 여러 시간들에 함께 나타나면서 존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자적인 B-이론적 인속이론은 개별자가 ‘보편자적인 방식’으로 존속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지 않더라도, 통시간적 동일성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서로 다른 시간 계열이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B-이론에서는 어떻게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시간에 함께 존재하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이는 동일한 대상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우리의 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양상적으로는 다른 가능 세계들 역시 우리 세계와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참된 양상 실재론이 여기에서의 B-이론과 대응하며, 이때 세계들 내에 거주하는 구체적인 개체들 사이의 통세계적 동일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보편자적인 B-이론적 인속이론이 지니는 어려움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두 번째 형태의 B-이론적 인속이론은 인속이론가들 스스로 대상이 인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직관적이라고 주장하는 바, 즉 수적

---

조합들에 대한 구분과 이렇게 조합된 각각의 이론들의 특성들에 대한 논의와는 구별되어야 할 다른 구분이다.

- 9)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로는 D. H. Mellor가 있다. Mellor 1998, Ch. 8을 참고하라.
- 10) Lewis 1986a, Lewis 2002b에서 이러한 형태의 인속이론이 지니는 문제, 통시간적 동일성 문제 혹은 일시적인 내재 속성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Hawley 2001, p.43에서도 이 문제가 인속이론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 글의 4절을 참고하라.

으로 동일한 하나의 대상은 시간을 견디면서 지속한다는 생각에 더 가깝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형태의 B-이론적 인속이론이 보여주는 세계는 길게 늘어선 철길 위를 열차 한 량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때 그 열차 한 량이 위치하게 되는 자리를 현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 열차 한 량을 철길 위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공간적인 유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간 상을 움직이는 대상은 공간 상을 움직이는 대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대상들은 스스로의 힘이나 외부의 힘을 통해서 공간 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 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과 같을 수는 없다. 대상 스스로가 시간 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기이하기 때문에, 시간 상을 이동하는 비유에서 그 움직임의 원인, 즉 동인(動因)이 대상에 내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이 시간 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B-이론적 인속이론은 외부의 힘, 외적 동인을 요구해야만 한다. 마치 장기말을 장기판 위에서 우리의 손으로 움직이듯이, 우리가 B-계열 위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를테면 '외부의 손'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듯 보인다. 도대체 시간과 시간 상에서 존속하는 대상 외에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대단히 정합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무리한 형이상학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우리가 이 이론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

## (2) B-이론적 편속이론 B-theoretic Perdurantism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론은 B-이론적 인속이론보다도 더욱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현재는 지표적일 수조차 없게 되기 때문이다. B-이론적 편속이론이 보여주는 세계는, 위에서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적 유비를 통하여 다음과 같



이 이야기될 수 있다. 길게 늘어선 철길 위에 열차의 부분들이 길게 늘어서있다. 이러한 세계는 너무나도 정적인 세계여서, 시간도 대상도, 그 무엇도 운동하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시간이 존재론적으로 대등하고, 대상의 모든 시간적 부분들 역시도 동등하다. 루이스는 현재의 지표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현실성(actuality)에 대한 나의 지표적 이론은 정확히 시간에 대한 보다 덜 논쟁적인 원칙을 반영한다. 우리의 현재 시간은 다른 시간들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만이 다른 모든 시간들과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현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있는(inhabit)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라고 부른다. 다른 시간들에 거주하는 존재자들도, 만일 그들이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의미한다면, 진정으로 그들 자신의 시간을 '현재'로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에 부여한 의미는 그것이 지표적이라는 의미이고, 어떠한 시간 t에서도 시간 t 자체를 지시하기 때문이다.<sup>11)</sup>

하지만 B-이론적 편속이론에서는 루이스를 따라서 '내가 있는 시간'에 의해 지시되는 시간을 현재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시간'에 의해 지시되는 단칭적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편속 이론에 따르면, '나'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은 나의 시간적 부분들의 합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현재에 대한 지표적 분석을 시도하게 된다면, 나의 부분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시간 계열 상의 시간들의 합이 현재가 되며, 우리가 4살 때의 나를 부분으로 갖기 때문에 4살 때의 그 시간이 현재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만큼, 이 이론은 이상한 이론이 된다.

그렇다고 중립적인 표현으로서의 '내가 있는 시간', 즉 '현재'를 '지금의 내가 있는 시간'이나 보다 정확히 '나의 현재-부분이 있는 시간'과 동의적이라고 답변할 수도 없다. 이러한 답변은 존재론적

11) Lewis 1973b, p.86.

으로 특별한 현재를 거부하는 B-이론에서는 순환적이기 때문이다. 시간 계열 위의 자리들과 대상의 시간적 부분들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이론이기 때문에, B-이론적 편속이론에서는 중립적 의미에서의 ‘나’와 마찬가지로의 중립적 의미에서의 ‘현재’ 모두를 동시에 지표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이론에 따르면, 중립적 표현인 ‘나’를 ‘나의 지금 시간 부분’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중립적 표현인 ‘지금’이나 ‘현재’ 역시도 ‘내가 위치한 시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sup>12)</sup>

사실 편속 이론이 인속 이론에 비해서 갖는 장점은 그 이론이 변화에 대하여 (만일 직관적으로가 아니라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은 사물들이 편속하기보다는 인속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변화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편속이론은 인속이론보다 간단하고 정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편속이론에 의하면, 한 대상에 있어서의 변화란 그 대상의 시간적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마치 한 대상이 공간적으로 모양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한 대상은 시간적으로도 속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설명은 한 대상이 어떻게 양립 불가능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변화의 문제에 좋은 답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속 이론의 경우, 이러한 변화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복잡한 설명을 요구한다. 아마도 편속 이론가로서 Lewis는 시제 양화사(tensed quantifiers)에 대한 논의에서 현재론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인속 이론가들에게도 “인속이론가는 변화에 관한 그들의 형이상학이 철학에 때문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견해라는 것을 자랑해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상치 못한 복잡성은 이들에게 매우 안 좋은

12) 각주 6)에서 고려했던 질문은 이 문제와 관련된다.

소식이 된다”라고 말했을 것이다.<sup>13)</sup>

그렇지만 편속이론과 B-이론이 결합한 형이상학은 편속이론이 지니는 장점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듯 보인다. 사실상 시간에 관한 논의와 독립적으로 논의되는 듯 보였던 존속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편속이론이 그 이론적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특정한 철학적 입장, 즉 B-이론을 배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과연 존속 문제와 결합한 A-이론은 현재성 문제와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지 계속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

### 3. A-이론을 지지하는 형이상학적 논변들 Metaphysical Arguments for A-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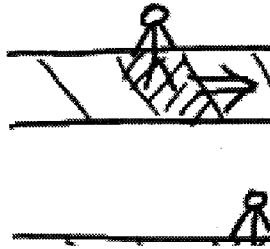
우리는 조금 전까지 B-이론이 존속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결합하였을 때, 현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결합이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B-이론적 인속이론은 현재를 지표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 견해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고수되기 어려운 이론이며, B-이론적 편속 이론은 아예 현재에 대하여 지표적인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13) Lewis 2002a p.7에서 루이스는 시제 양화사와 관련된 철학적 논의에서 시간에 대한 형이상학의 직관적임을 자랑하는 현재론적 설명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비판한다. 이 단락에서의 논의가 인속이론이 편속이론보다 문제가 많은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루이스와 같은 편속이론가의 인속이론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시간에 대한 철학적 입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시간에 대한 철학적 입장과 함께 고려된 인속이론은 편속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온 문제에 보다 그럴듯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4절에서 논증될 것이다.

이론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A-이론은 어떠한 답변을 줄 수 있을까? B-이론적인 고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존속과 관련한 두 가지 이론들, A-이론적 인속이론과 A-이론적 편속이론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A-이론적 인속이론 A-theoretic Endurantism

A-이론적 인속이론에 따르면 B-계열 위에서 인속하는(endure) 대상과 현재가 함께 움직인다. 이 이론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대상과 현재가 함께 움직인다”는 말의 양상적 지위(modal status)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따라서 A-이론적 인속이론은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뉘게 된다.

1) 우연적 일치 이론 (Contingent Coincidence Theory)

이 이론은 현재와 인속하는 대상이 함께 B-계열 위를 이동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답변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이론은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 어째서 우리는 다른 시간이

아닌 이 특권적인 시간에 존재하게 된 것인가?<sup>14)</sup> 이 이론은 이러한 우연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다. 만일 시간과 인속의 방향이 다르거나 위치가 다른 가능 세계를 고려해보자. 이 경우, 인속하는 대상은 특권적인 현재는 자신의 시간이 아니며, 시간의 흐름은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이 위치한 시간을 '현재'라고 말하며,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이 A-이론적 인속이론의 전부가 아니다.

## 2) 현재론 (Presentism)

이 이론은 위의 우연적 일치 이론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특권적 현재와 인속하는 대상이 필연적으로 함께 B-계열 상을 이동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A-이론적 인속이론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길게 늘어선 철길 위에 사람이 궤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에 상응한다. 현재론에서는 오직 현재적인 것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시간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론은 우리의 현재에 대한 지식을 보장한다.<sup>15)</sup>

### (2) A-이론적 편속이론 A-theoretic Perdurantism

이 이론 역시 현재성 문제에 대하여 그럴듯한 답변을 제공할 수

14) 본은 “만일 우리를 부분으로 갖는 바로 그 세계가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단 하나의 세계라면, 이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가! What a remarkable bit of luck for us if the very world we are part of is the one that is absolutely actual!”라는 루이스의 말(Lewis 1986, p. 93)을 이용하여 “만일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이 특권적인 단 하나의 시간이라면, 이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가? What a remarkable bit of luck for us if the very time at which we are is the one that is the privileged present!”라며 마찬가지로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한 바 있다. Bourne 2002, p.359를 참고하라.

15) Bourne 2002, p.361.

있다. B-계열 상에 늘어서있는 어떤 대상의 시간적 부분들(temporal parts) 중에 현재에 위치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다른 특징들을 지닌다. 예를 들어 B-이론적 편속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지금의 나'에 대하여 편속이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지금의 나'는 편속이론적으로 '지금의 나의 부분'이 되며, 바로 현재라는 시간이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나'라는 표현을 편속 이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비유적으로 영화와 비교될 수 있다. 영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름들에는 각기 구별되는 상들이 위치하지만, 빛이 어느 부분을 비추는가에 따라서 스크린의 화면이 달라진다. A-이론적 편속이론에서 현재라는 특권적 시간이 영화에서의 빛에 해당하며,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이 이론은 현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A-이론에 기반한 존속이론이 현재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존속 문제에 대하여 편속이론을 받아들인 인속이론을 받아들인, 시간에 대한 B-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A-이론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논증은 A-이론가들이 B-이론가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 시간에 대한 무시제 이론들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시제 문장들에 대한 진리 조건을 무시제 문장들에 의해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 사실과 같은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B-이론을 지지할 좋은 이유를 제공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제 사실들에 의해서 시제 문장들이 참이 된다고 생각하는 A-이론가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시제 이론가들의 논의에 대하여 언어철학적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 역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

리가 일상적으로 강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A-계열이,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B-이론가들에게 증명의 부담이 있었고, 그러한 증명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전개된 언어 철학적 논의에서는 B-이론가들의 논변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으며, 논변이 그럴듯할수록 B-이론이 정합적인 이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sup>16)</sup> 이러한 상황에서 논쟁의 장을 형이상학으로 옮겨서, B-이론이 언어 철학적 측면에서의 부담은 덜었는지언정 형이상학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논증한 것은 A-이론가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4. A-이론과 인속이론 A-theory and Endurantism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서 시간에 관하여 A-이론이 B-이론보다 철학적으로 좋은 이론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논증했다고 가정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 이유에서 위 논증의 결론 전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A-이론적 인속이론만큼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B-이론의 입장에서 ‘당신 또한 마찬가지로(Tu quoque) 논변’을 제시하는 사람일 수도, 같은 A-이론의 입장에서 경쟁 이론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이 보다 나은 이론임을 논증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논변의 요지는 ‘인속이론은 심각한 결함 — 일시적 내재 속성(temporary intrinsics)의 문제 — 이 있는 이론이다’라는 말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6) B-이론가들의 언어 철학적 논변을 통해서 B-이론이 A-이론에 비해 보다 나은 이론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근거로 의미론적 오컴주의(Semantic Occamism)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Bennett 2003의 2장 11절을 참고하라.

인속이론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편속이론을 옹호하려 했던 대표적인 철학자는 루이스(David K. Lewis)이다. 그는 한 시점에서 는 앓아 있다가, 다른 시점에 서있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동일한 대상이 굵음과 곧음이라는 속성을 지닐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존속하는 대상에게 내재적 속성의 변화가 가능한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일시적 내재 속성 문제(Temporary Intrinsic Problem)를 제기하고, 편속이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증을 제시한다.<sup>17)</sup> 내재 속성 문제에 대하여 루이스가 제시한 가능한 인속 이론적 해결책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관계적 이론(Relational Theory): 모양과 같은 내재 속성들은 참된 내재 속성들이 아니라, 인속하는 대상과 시간과의 위장된 관계들이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재하는 속성들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내재적 본성이 다른 시간들에 대하여 갖는 관계들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속성이란 없다! 루이스는 이러한 이론은 단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만일 우리가 모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관계가 아니라, 속성이라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관계적 인속이론이 일시적 내재 속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2) 현재론(Presentism): 이는 일시적인 내재속성 문제에 대하여 대상들이 갖는 유일한 내재적 속성들은 그것이 현재 순간(present moment)에 갖는 속성들뿐이라고 답변하는 이론이다. 루이스는 이

---

17) Lewis 1986a, pp.202-204. 루이스가 제시한 인속이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속이론가들의 다양한 답변들이 시도되었는데, 루이스는 이러한 답변들에 대하여도 인속 이론이 문제가 있음을 Lewis 2002b에서 논증한다.



이론 역시도 믿을 수 없는 이론, 일시적 내재 속성 문제에 답변할 수 없는, 그래서 유지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인속 자체를 거부하는, 그래서 존속 자체를 거부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루이스의 설명에 의하면, 편속 이론은 다른 모양들, 이를테면 굽음과 곧음을 포함하여, 다른 일시적 내재 속성들이 다른 대상들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시간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일시적인 내재 속성들은 각기 다른 이들 부분들의 속성들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내재 속성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인속이론가들은 편속이론이 변화 자체를 거부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속이론가들의 비판에 대하여, 루이스는 편속이론의 설명력이 인속이론이 지니는 설명력보다 낮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동일한 대상이 다른 속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변이(variation)와 마찬가지로 편속 이론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인속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루이스는 관계적 인속이론이나 현재론이 속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존속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인속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철학적 문제에 대하여 특정 이론의 설명력이 강할 경우, 그리고 경쟁 이론이 그 문제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직관을 수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관에 부합하는 이론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직관에서 벗어난 이론을 올바른 이론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루이스는 관계 이론과 현재론이 구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인속 이론이 일시적 내재 속성 문제에 대하여 정합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루이스가 한 것처럼,

변화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인속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관계 이론과 현재론이 시간에 관한 논의와 함께 고려될 경우, 루이스가 지적한 바와는 달리, 일시적인 내재 속성 문제에 그럴듯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루이스의 인속이론에 대한 비판은 시간 철학에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이론을 전제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루이스의 논의가 (인속이론 일반이 아닌) B-이론적 인속이론을 논박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논의했던 구분에 따라서, B-이론이 아닌 A-이론적 인속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인속이론은 루이스의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형이상학적 논변’이 변화와 존속과 관련된 철학적 논쟁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3) 관계적 이론을 위한 논변: 우리가 A-이론적 인속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참된 내재적 속성들은 사실 시간에 대한 관계라는 관계적 이론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A-이론적 인속이론에 의하면, 인속하는 대상이 내재적 속성에 있어서 변화가 없더라도, 그 대상은 변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 대상의 시간적 속성이 달라진 것 역시도 변화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질적으로 동일한 쇠로 이루어진 구가 질적인 변화 없이 인속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구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자. 하지만 1시간 전 혹은 하루 전의 그 구는 과거적이었지만, 지금은 현재적이기 때문에 시간적 속성이 변하게 되었고, 대상의 속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편, 편속 이론은 과거적임, 현재적임, 미래성과 같은 시간적 속성을 선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위에서 분류된 시간 철학적 존속

이론에는 A-이론적 인속이론 뿐만 아니라, A-이론적 편속이론 역시 가능하며, 이러한 편속이론은 시간적 속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적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보다 설명의 범위가 넓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A-이론적 인속이론은 바로 이 점에서 설명의 범위가 넓은 이론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간적 속성의 변화가 대상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왜 루이스가 고려했던 내재 속성들의 변화 역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야기되어서는 안 되는가? 변화라는 것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이해할 경우, 시간적 속성이 아닌 다른 내재 속성들 역시 사실상 시간과 인속하는 대상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설명의 범위가 넓은 이론이 변화에 대하여 통합적인 방식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A-이론적 인속이론이 일시적 내재 속성 문제에 답변할 수 있고, 그 방식이 보다 많은 문제를 보다 통합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면, 변화는 동일한 대상이 다른 속성을 지닌다는, 존속하는 대상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속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 다시 말해서 모양과 같은 속성은 관계가 아니라 직관은 우리가 시간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무시제적으로 대상과 속성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사실상 시간과의 관계들이 내재적 속성으로 이해된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설명해 낼 (explain away) 수 있다.

(4) 현재론을 위한 논변: 루이스가 현재론이 인속에 대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그는 현재론이 “다른 시간들은 거짓 이야기들과 같은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sup>18)</sup> 이는 현재론이 B-계열을 거

---

18) Lewis 1986a, p.204.

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루이스가 공격하는 이론은 A-이론적 인속이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A-이론은 정의상, B-계열과 더불어 A-계열을 받아들이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이스는 현재론이 아닌 이론에 ‘현재론’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허수아비 논증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현재론의 특정한 (지지될 수 없는) 이론을 (정당하게) 비판한 것이다.

사실 현재론을 현재 시간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맥락들이 있다. 가령 현재론이 시간에 관한 이론이 아닌, 다른 내포를 지닌 이론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즉, 시제적 양화사와 관련된, 과거 개체나 미래 개체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 이론을 지시하기 위하여 ‘현재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명제들은 어떻게 사물들이 무시제적으로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물들이 있었는지, 있는지,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시제적 존재자들이라고 주장하는 형이상학적 주장, 이른바 진지한 시제론적 접근(*serious tensor approach*)과 구별하여,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오로지 현재와 현재에 존재하는 것들만이 있다는 견해를 현재론이라고 한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론을 시간 철학적 입장에서 자세히 고찰하지 않은 채로 제시된 이론이 불과하다. 만일 현재론이 현재 이외의 다른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면, 루이스의 비판대로 인속은 불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시간적인 논의에서, 현재론은 시간적 경과도 설명할 수 없게 되며, ‘현재론’이라는 이름에 포함된 ‘현재’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종류의 존재자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론을,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규정되던지 간에, A-이론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B-계열 상에서) 시간이 경과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된 현재론은 A-이론적 인속이론을 구분할 때 논의한 시간 모형, 즉, 철길

19) Haslanger 2003, p.322.

위를 궤도 차량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모형이어야만 한다.

현재론을 B-계열이 존재하고, 그 위를 존재론적으로 특권적인 지위를 지닌 현재가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시제적 존재자들에 관한 논의의 결과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론은 시간에 관한 존재론에만 변화가 있을 뿐, 역시 특권적 현재에 존재하는 것들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인속을 ‘움직이는’ 현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이 이론은 어떠한 반직관적 결과도 함축하지 않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속이론은 편속이론에 보다 형이상학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이론이 아니다. 관계 이론은 A-시간과 결합하여 이해할 경우, 변화를 오히려 통합적으로 이해할 있게 한다. 또한 루이스가 공격한 이론과 다른 방식에서 이해된 A-이론으로서의 현재론은 존속을 인속으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 이론이든 현재론이든 모두 일시적 내재 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이 되며, 오히려 변화에 대한 우리의 직관까지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편속 이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이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루이스는 사실 인속이론을 B-이론적으로만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는 그가, 2절에서 B-이론적 편속이론을 논의할 때 인용된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이론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상상적인 방식과의 유비를 통해서 인속이론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B-계열을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가능 세계

20) Lewis 2002b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속이론적 답변들이 고려된다. 그러나 루이스의 논변은 그 이론들에 대하여 Lewis 1986a에서 관계주의 이론에 반대하여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논변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해결책은 이들 이론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관계적 이론이 구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들과 유비하게 되면, 관계 이론은 구체적인 세계들에서 통세계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이론에 대응하여 양립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는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는 이론, 즉 보편자적인 B-이론적 인속이론이 된다. 현실 세계의 존재론적 우위를 주장하고 현실 세계를 제외한 다른 세계들은 대용적 세계들(ersatz worlds)에 불과하다는 현실론(Actualism)에 현재론을 유비하면, 현재를 제외한 다른 B-계열 상의 시간들은 모두 거짓된 시간들에 불과하게 되어 그의 비판대로 존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의 논의에서 A-이론적인 인속이론은 루이스의 비판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존속에 관한 논의가 시간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 중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5. A-이론과 현재의 지표성 A-theory and Indexicality of the Present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 이론과 존속 이론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A-이론이 B-이론에 비해 형이상학적으로 보다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고려에서는 인속이론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현재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론’으로 불리는 이론이 구별되거나, 혹은 보다 자세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A-이론과 B-이론을 규정하고 구분하는데 있어서 애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간 이론의 모형이 제시되고, 그 이론이 지니는 몇몇 철학적 특성들을 논의할 것이다.

A-이론은 A-계열이 시간에 본질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과거성(pastness), 현재성(presentness), 미래성(futurity)이라는 속성들을 받아들이는 이론이다. 달리 말해서, 시간의 경과(passage of time)를 받아들이는 이론이다. 또한 이 이론은 현재(the present)가 다른 시간과는 달리 존재론적으로 특권적인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A-이론과 B-이론을 구별할 때, 시간적 경과를 용인하는지의 여부와 현재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견해 — 현재는 지표적인가의 여부 —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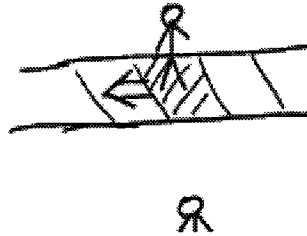
많은 경우, 시간의 경과와 특권적 현재는 A-이론가들에게 동치로 받아들여지는 듯 하다. 하지만 이러한 동치가 성립하지 않는 이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의 논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시간의 경과를 받아들이더라도 현재를 지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이론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A-이론과 B-이론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1) 새로운 시간 이론 (New Theory of Time<sup>21)</sup>)

새로운 시간 이론은 시간의 경과를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받아들이지만, 특권적 현재를 거부하고 현재를 지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존속하는 대상이 B-계열 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가만히 있고 B-계열에 해당하는 시간열 자체가 움직임으로써 대상들은 시간에 걸쳐서 존속하게 된다.

21) 'New Theory of Time'이라는 명칭은 새로운 무시제 이론(New Tenseless Theory of Time)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형이상학적 논의에서의 시간 모형과는 다른 시간 이론을 의미하도록 사용할 것이다. 이 새로운 이론이 '새로운 시제 이론 New Tensed Theory of Time'으로 불리는 것이 가능한지는 중요한 문제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새로운 시간 이론'으로 부르게 될 시간에 관한 형이상학적 모형의 언어 철학적 이론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므로,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문제는 추후에 다룰 예정이다.

유비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간 모형은 흐르는 강물 속에 존재자가 들어가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이론에서 A-계열은 필요하지 않으며, B-계열적인 시간열만으로 시간의 경과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 절의 처음에 제기되었던 A-이론의 특성 문제가 나타난다. 즉, A-이론을 시간의 경과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정의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지표성을 거부하고 현재를 특권적 존재자로 받아들이는지 견해로 보는지 아니면 이 둘 모두인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다. 명백히 이 시간 이론은 시간의 경과를 받아들이지만, 현재를 지표적으로 분석하게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2) 새로운 시간 이론은 A-이론적인가 아니면 B-이론적인가? Is A New Theory of Time A-theoretic or B-theoretic?<sup>22)</sup>

우리는 위에서 루이스가 제기한 일시적 내재 속성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현재론이 구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현재론을 개체들의 존재에 관한 이론으로 볼 경우, 이 이론

22) 여기서 다루는 주요한 문제는 A-이론적 인숙이론으로서의 현재론과 새로운 시간 이론이 동형적인지(isomorphic) 아닌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시간에 대하여도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루이스의 비판이 적용되는 현재론이고,<sup>23)</sup> 시간에 대하여는 B-계열을 받아들여져 존재론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 현재를 인정하면, 루이스의 비판에서 자유로운 현재론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롭게 제시된 시간 이론은 현재론인가?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

새로운 시간이론이 시간의 경과를 받아들이는 한, 이 이론은 루이스의 비판이 제기되는 현재론, 즉 현재 시간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일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론을 특권적 시간을 인정하는 이론으로 파악하는 한, 시간의 지표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간 이론은 루이스의 비판에서 자유로웠던 현재론도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이론은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현재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현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논의되었듯이, 현재론은 시간에 대한 맥락과 존속과 관련된 맥락, 그리고 시제 양화의 문제와 관련된 존재론의 맥락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논의되어왔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론이 지니는 애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현재론이란, 바로 시간에 대한 철학적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시제 양화사와 관련하여, 과거 개체, 현재적 존재자, 미래 개체 등에 관한 이론인 한, 시간에 대한 존재론적 함축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는 또 다시 해소되어야 할 애매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특권적 지위'에 관한 것이며, 이것이 루이스의 비판에서 자유

23) 이러한 현재론은 A-계열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공간 유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경과하는 시간으로서의 A-계열은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B-계열 없이는 시간의 경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마치 B-이론적 인속이론에서 시간 상에 존재자를 인속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형이상학적 난점이 제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형이상학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로운 A-이론적 시간이론으로서의 현재론과 새로운 시간 이론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A-이론적 인속이론으로서의 현재론은 새로운 시간 이론과 시간의 경과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현재를 지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답변이 달라진다. 현재론은 인속이론이기 때문에, B-이론적 인속이론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속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경과하는 시간으로서의 A-계열이다. 이 이론은 A-이론이기 때문에, B-계열과 A-계열을 모두 받아들이며, 이 두 시간은 존재론적으로 다르다. 마치 철도 교통 체계가 서로 다른 존재자들인 철로와 기차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 이론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특권적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B-계열과 같은 시간열 자체가 본성 상 움직일 뿐이다. 따라서 '기차'와 같은 운송수단(vehicle)으로서의 존재자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이론에서도 다른 의미에서 현재는 '특권적'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만 존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 역시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귀족들은 스스로를 신이나 영웅의 후손으로 칭하면서,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노예들과 존재론적으로 다른 종류의 존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은 대통령이나 수상, 심지어 왕이나 여왕마저도 그들이 존재론적으로 우리들과는 다른 종류의 존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그들을 특권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 유비에 따르면, 우리는 '특권적인 현재'가 지니는 애매성을 다음과 같이 구별해야만 한다. 하나는 현재만이 존재하고, 다른 시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시간들과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뭔가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존재자라는 의미에서의 '특권적 현재'이며, 다른 하나는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다른 종류의 존재자는 아니지만, 그것의 '역할'에 의해서 특권적이라는 의미-그 시간에 위치한 대상들만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특권적 현재'이다. 이렇게 애매성을 해소하고 나면, 우리는 현재론과 새로운 시간이론이 동일한 이론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성들에 관하여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간 이론이 (보편자적이지 않은) B-이론적 인속이론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존속하는 대상이 B-계열 위를 움직이는 것과 대상은 정지해있고, B-계열이 움직이는 것 사이에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 외에 어떠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물을 수 있다. 이 두 이론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위에서 제시되었던 이른바 '형이상학적 논변'에 의해서, B-이론적 인속이론이 새로운 시간 이론과는 달리 지지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B-이론적 인속이론에서는 대상이 시간 계열 위를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문제가 되었지만, 새로운 이론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대상이 존속하는 시간 계열이 움직인다는 생각은 우리의 직관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간 이론은 지금껏 논의되어온 A-이론도 아니고, B-이론도 아니다.

### (3) 새로운 시간 이론의 몇몇 특징들 (Some Features of New Theory of Time)

새로운 시간 이론은 현재성 문제에 관하여 지표적 설명을 통한 답변을 제공한다. 우리가 현재적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시간이 바로 현재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보장된다. 따라서 현재를 지표적으로 분석하게 되어, A-이론과는 달리 존재론적인 검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이론은 시

간의 경과를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서, 루이스의 인속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우면서 A-이론적 인속이론이 지녔던 장점을 모두가 가진다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간 이론은 A-이론가들이 B-이론가들에게 느꼈던 반직관적 측면-즉, 시간이 경과한다는 믿음-을 구제할 수 있다. 이는 멜러(D. H. Mellor)가 시간이 경과한다는 믿음을 우리의 심리적인 특징이라고 답함으로써 설명해 낸(explain away) 것과 달리,<sup>24)</sup> A-계열을 거부하면서도 시간의 경과에 대한 실질적인(substantial)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시간 이론이 지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바로 이 이론이 인과적으로 닫힌 세계의 시간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5)</sup> 이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세계의 시간은 사실 A-이론이나 B-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인과적으로 순환 고리(loop)가 있는 닫힌 세계나 왕복 영원 회귀하는 세계(a world of two-way eternal recurrence)<sup>26)</sup>에서도 사물들은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고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세계에서는 과거적이었던 것이 동시에 미래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A-이론은 양립 불가능한 속성을 대상에게 귀속하게 되며, 이 때문에 이 이론은 이들 세계에 대한 시간 모형이 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B-이론 역시 이들 세계에 대한 시간 모형이 될 수 없다.<sup>27)</sup> B-이론은 보다 이론과 보다 늦은 같은 관계들로 시간 계열

24) Mellor 1981, Ch. 5를 참고하라.

25) Lewis 1973a와 Lewis 1976을 참고하라. 이들 논문에서 루이스는 인과적으로 닫힌 세계의 가능성들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옳다면, 시간 이론은 이러한 세계의 시간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의 범위가 넓어야 할 것이다.

26) 이러한 세계는 역사가 그 자체로 계속 되풀이되는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이다. Lewis 2002a를 참고하라.

27) 여기에서는 B-이론을 이행성이 성립하는 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엄밀하

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론이고, 이러한 관계들은 이행성(transitivity)이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인과적으로 닫힌 세계나 영원 회귀하는 세계에서 시간은 이행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보다 이르고, b가 c라는 사건보다 앞선다고 해도, a가 c보다 이르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마치 타원형의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할 때, 선두가 꼴지를 거의 따라잡았을 경우, 우리 세계는 선두가 꼴지 바로 뒤에서 달리고 있음에도 선두가 꼴찌보다 앞서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과적으로 닫힌 세계나 영원 회귀하는 세계에서는 꼴찌가 선두보다 이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간 이론은 이러한 세계에 대한 시간 모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시간 이론의 시간 계열을 이행적인 B-계열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공간적 유비를 통해, 대상은 가만히 있고 시간 계열이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되는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 계열이 원형으로 맞물려 이어져있을 경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대상은 인속하게 되며, 이 모형은 닫힌 인과나 영원 회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들 세계들을 선형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면, 이러한 세계의 시간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은 보다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A-이론과 B-이론을 구분하는 기준과 현재의 지표성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시간의 경과와 현재의 지표성의 관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간 이론을 모색하였다. 이 이론은 형이상학적으로 많은 흥미로운 특징들과 장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시제 표현과 관련된 의미론적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무시제 이론보다 진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물리적인 시공간 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함으로써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새로

운 시간 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단지 모색하는 차원에서 논의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 새로운 시간 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변을 구성할 수는 있다. A-이론은 ‘언어철학적 논변’을 통해서 의미론적으로는 불필요한,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특권적 현재를 인정한다는 형이상학적 부담감을 지닌 이론이고, B-이론은 ‘형이상학적 논변’을 통해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론이다. 이는 시간 이론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 이론은 특권적 현재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형이상학적 논변’에서 자유로운 이론이다.<sup>28)</sup>

---

28) 한 심사위원은 이 글이 B-이론을 공격하는 논증 부분과 새로운 시간이론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분되고, 따라서 2개의 논점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져 글 전체의 통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글의 목표는 시간에 대한 두 이론과 존속에 대한 두 이론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새로운 시간 이론 역시 ‘정당화의 맥락’이 아닌 ‘발견의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

### 참고문헌

- Bennett, Jonathan.(2003), *A Philosophical Guide to Conditional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Bourne, Craig.(2002), "When am I? A Tense Time for Some Tense Theorist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80, No. 3, pp.359-371.
- Crisp, Thomas. M.(2003), "Presentism," in Loux, Michael. J., Zimmerman, Dean. W (ed.), *The Oxford Handbook of Metaphysics*, Oxford University Press.
- Haslanger, Sally.(2003), "Persistence through Time," in Loux, Michael. J., Zimmerman, Dean. W (ed.), *The Oxford Handbook of Metaphysics*, Oxford University Press.
- Hawley, Katherine.(2001), *How Things Persist*,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Le Poidevin and MacBeath.(1993), *The Philosophy of Time*,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avid. K.(2002a), "Tensed Quantifiers," in Zimmerman, D. W (ed.), *Oxford Studies in Metaphysics, volume 1*,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avid. K.(2002b), "Tensing the Copula," *Mind*, Vol. 111. 441.
- Lewis, David, K.(1986a), *On the Plurality of Worlds*, Blackwell Publishing Company.
- Lewis, David. K.(1986b), *Philosophical Papers Volume II*,

Oxford University Press.

Lewis, David. K.(1976), "The Paradoxes of Time Travel,"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3(1976), pp.145-52 in *Philosophical Papers Volume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Lewis, David. K.(1973a),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1973), pp.556-67 in *Philosophical Papers Volume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86b.

Lewis, David. K.(1973b), *Counterfactuals*, Blackwell Publishers.

Loux, Michael. J., Zimmerman, Dean. W.(2003), *The Oxford Handbook of Metaphysics*, Oxford University Press.

McTaggart.(1993), "Unreality of Time" in Le Poidevin and MacBeath (ed.), *The Philosophy of Time*, Oxford University Press.

Mellor, D. H.(1981), *Real T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llor, D. G.(1998), *Real Time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Oaklander, L. N and Smith, Q.(1994), *The New Theory of Time*, Yale University Press.

Smith, Quentin.(1987), "Problems with the New Tenseless Theory of Time," *Philosophical Studies* 52 (1987), pp.371-92 in Oaklander, L. N and Smith, Q (ed.), *The New Theory of Time*, Yale University Press.

Zimmerman, D. W.(2004), *Oxford Studies in Metaphysics, volume 1*, Oxford University Press.

연세대학교 철학과

E-mail: leonardowhee@naver.com